

신행수기 당선작(진흥원이사장상)

사십법을 애인삼아 ③ · 글

양보리심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그 밤 부처님과 나와 촛불이 삼위일체가 되어 실컷 울었다. 한참을 울다가 눈을 부비니 옆에서는 향불이 모락 모락 향내음을 풍기면서 피어오르고 동시에 탁한 공기 나쁜 냄새 등을 모조리 흡수하고 있었다. 나는 중생이 괴로우면 부처님도 같이 울어주셔서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신 부처님이라고 하는가보다 생각하면서 피어오르는 향불을 바라보았다. 순간 폭풍이 일던 가슴이 스프링 가라앉고 평온이 찾아오면서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자기 몸을 태우면서 주위를 밝히려고 눈을 흘리는 촛불을 부처님의 대자비로 생각했다.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평온을 가져다준 향불은 육바라밀종의 무위보시라고 생각했다.

이윽고 은은한 종소리가 잠결에 들려오고 밖에서는 도랑석을 치는 묵탁 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른 일어나서 한쪽편에 서있으니 노스님 한분이 들어 오셔서 상단을 향하여 심배를 올린후 나를 보고 "불야를 하시었소" 하셨다. "네" 하니 "잘 참아 내셨구만" 하시면서 걸가 부처를 들고 앉으시더니 혼자말로 "일체가 유심조라오" 하셨다. 분명히 나를 보고 하신 말씀인데 무슨 뜻일까? '일체유심조'라.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번 들어서 귀에 익은 소리 같기도 한데 딱히 무슨 뜻인지는 일응달출 할 모르겠다. 아무튼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었지. 나

는 일상대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렸지만 너무도 공경하여 "저... 스님..." 하고 부를러다 입을 다물었다. 노스님은 그사이 함신상대에 깊이 들어가신 것 같아 보였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공양주에게 물어보니 노스님은 운수행에 나섰다가 우연히 문수사에 들러서 잠깐 계시는 중이라고 했다. 나는 그후로는 노스님을 한번도 못만났다. 동이를 무릎 산을 내려오는데 이상하리 만큼 몸이 가볍다. 그렇게도 많이 아프던 허리도 안아프고 손가락도 부기가 빠져서 쫄다 오셨었다 해도 전혀

'일체유심조' 귀에 익은 말인데 무슨 뜻일까 산을 내려오는데 이상할만큼 몸이 가볍고 그렇게 아프던 허리·손·머리가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않았다. 너무 신기해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아도 머리를 흔들어도 보아도 어지럽지도 않고 상쾌하다. 나는 '부처님의 위신력이 어디지도 신기하구나'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혹시나 했는데 그후로는 다시 재발하지 않고 건강을 되찾은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은혜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그후로 장남은 졸업하여 공채로 대기업에 취직하고 딸은 국가가 시행하는 중학교고사 자격시험(순위고사)에 합격하여 지금도 교편생활을 하고 있



그림 · 문병성

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착실하게 공부를 하여 절반은 장학금으로 보태고 절반은 학자금 용자로 충당했다. 나는 작은 수입으로 할부금을 지불하는 고된 생활을 계속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다시한번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막내아들들에 대해서는 대학에 입학한 경위를 쓰고있다. 1980년도에는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어 본고사가 폐지되고 학력고사와 내신성적으로 입학이 결정되던 때이다. 평소의 실력은 우수하여 '내신성적은 일등급이었는데 학력고사 성적이 반쪽 스럽지가 못했다. 나 환경도 복잡했다 여건도 나빠서 대학에 못 들어가 지나 않을까 하는 감박관념에 시험 치르는 날에도 혼란이 온것 같았다. 하는수 없이 성적에 맞추어 S대학 신문방송학과에 응시하여 쉽게 합격은 했지만 기일내로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는데 등록마감 3일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S대학은 학칙은 까다로우

도 우수한 학생은 구제를 해주는 이라도 있었다. 형편이 어려워 등록을 못한 것을 알고는 신입생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장기용자(졸업후에 갚는 것) 추천서를 주어서 그날로 등록을 마치고 말일후에 실시하는 신입생 레크리에이션에 참가를 했으니 내 아들과 S대학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것 같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후는 수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국영기업체에 취직하여 열심히 살고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두고 타고난 운명이라고 하는건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기미가 보여 모처럼 집안에 활기가 찼는데 막바지 고개에서 그해를 못넘기고 오랜 부병생활을 하던 남편이 재기의 꿈도 펼쳐보지 못한채 재차 쓰러져서 사망하고 말았다. 조금만 더 살았어도 좋은 일을 볼수 있었을터인데... 아무리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지만 너무도 박박한 그의 생애가 참으로 애석하기만 했다.

세월이 약이란 말처럼 그동안 많은 풍파를 겪으며 고달픈 세월을 살았다. 올바른 삶과 실천을 염원하며 때로는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남이 보기에는 우직스럽게도 보였겠지만 세월이란 이 거대한 악으로 내 가정의 모든 중병은 다 치유가 된 셈이다. 나는 천성적으로 융통성이 없다. 아무리 쓰러진 아픔이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남에게 사정을 하며 매달리거나 하소연을 해본 적이 없다. 모든 일은 나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지으면서 그저 초연하게 사는 것이 내 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일가친척에게는 마음과 팔까

고생하며 얻어진 인내력은 나의 큰 재산이 되었다 급한일에 당황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절망 않으며 화가나는 일에 분심을 발하지 않게도 되었다

봐, 친구에게는 나의 초라한 얼굴을 보이기 싫어서, 동창생에게는 자존심이 상해서, 의식적으로 그들을 멀리하면서 힘겹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아무데도 결핍이 없어 아주 편안하다. 고생을 하면서 얻어진 나의 인내력은 나의 큰 재산이 되었으며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어진 것은 나 자신을 조금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한일에 당황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절망하지 않고 화가나는 일에 분심을 발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남은 여생을 육바라밀을 도반 삼고 사십법을 애인삼아 팔정도(八正道)에 노닐면서(유미경 강설에서) 대자유를 만끽하며 후회없이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상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오시처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 재질 ASH(느릅 원목)
- 규격 가로 720 x 세로 340 x 높이 320 (단위:mm)
- 가격 8만5천원

· 구입문의 :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 (http://mall.buddhapia.co.kr)

권 佛子 반야 반지 권

불자의 자긍심을 세웁니다.

-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 경도
- 장건(正堅), 정사유(正壽), 정어(正路),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경(正敬)
- 삼족대력(十六大力)
- 지력(智力), 의력(毅力), 행력(行力), 힘력(힘力), 강력(剛力), 계력(戒力), 복력(福力), 덕력(德力), 번력(辯力), 작력(作力), 신력(神力), 재력(財力), 실력(實力), 선력(仙力), 통법력(通法力), 말미력(辯力)

- 품격 : 반야반지
- 재질 : 금, 큐빅(0.8K, 1.5K)
- 가격 : 1.8K-W 130,000, 1.4K-W 120,000
- Size :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http://mall.buddhapia.co.kr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사용, 견고함을 자랑하는 연등입니다.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리적인 힘에 쪼여지거나 장대비 속에서도 결코 젖지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볼 도량의 정염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장기간 사용후 물세척으로 새 것처럼 깨끗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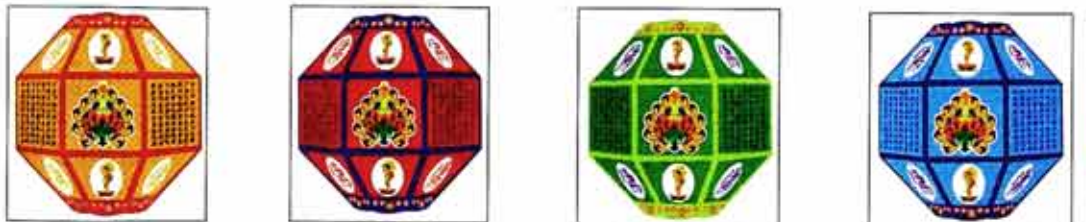
- 주문전화 : 02)732-1522/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매처 : 불·부다피아
- 납품방법 : 신청하신 곳으로 직배·택배 발송 (롯데, 등걸이, 이름표 포함)
- 제조기술특허 : 원석(기술발명출원 0007192호/ 실용신안등록028634호)

접등과 조립등은 불·부다피아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조립 등

조립등은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보관되며 사용시 펴서 흠에 맞추어 넣는 간단한 방식으로 뛰어난 색감을 자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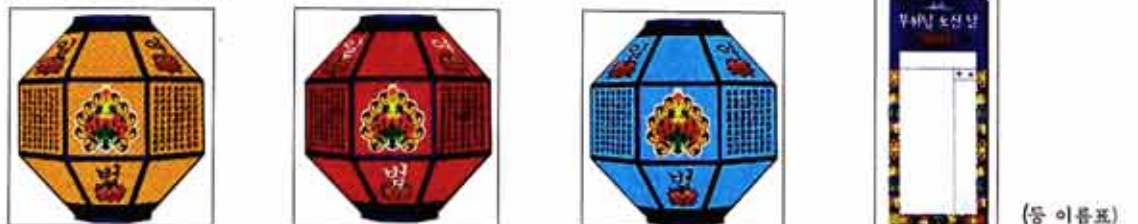
● 봉축 장엄팔각등 (규격 : 표준 11cm)



접 등

장엄팔각접등은 풀칠과 조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의 동작으로 펴서 사용하고, 접어서 보관하는 팔각등입니다.

● 반야심경 장엄 팔각등 (규격 : 표준 11cm)



(동 이름표)